

## 제1절 신문

### 1. 울진의 신문 보급 현황

신문은 방송과 함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모든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문화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신문은 통상적으로는 신문사라 불리는 전문기업이 일간 또는 주간으로 뉴스 보도를 주로 하여 발행하는 일반지를 가리키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媒體]의 일종이다.

신문에는 불특정한 다수의 독자를 상대로 시사 뉴스와 의견 등을 전달하는 일반지(一般紙) 외에도 기사의 내용과 그 신문이 대상으로 삼는 독자 또는 발행형태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신문으로 구분된다. 내용별로는 종합지 외에 경제·스포츠·오락·서평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문을 일반보도 신문과 구별하여 ‘전문지(專門紙)’라고 부른다. 또한 특정한 성(性)·연령·직업의 사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여성신문·어린이신문·학생신문·업계지(業界紙) 등을 ‘특수지(特殊紙)’라 하고, 특정정당이나 종교단체·노동조합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발행하는 신문을 ‘기관지(機關紙)’라고 한다.

그 밖에 발행형태에 따라 일간지·격일간지·주간지·순간지(旬刊紙)·월간지 등으로 나누고, 신문의 보급 범위에 따라 전국지(全國紙)·로컬 페이퍼·지방지, 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역지 등으로도 분류한다.

울진에서의 신문 보급은 1930년경에 매일신보가 최초로 들어왔고, 이어서 1920년에 창간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3종이 들어왔으나 구독 대상은 각 기관을 비롯하여 군내의 특수층에 국한되었다. 광복 후에는 서울, 한국, 경향, 동아 등 10여종의 신문의 지국이 개설되었고 주간지도 5~6종 보급되게 되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10여 종의 신문지국이 개설되었으며, 주간지도 5~6종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 울진지역에서 보급된 신문은 전국지였다. 이후 『대구매일신문』<sup>216</sup> [현 매일신문]과 『영남일보』<sup>217</sup> 등 지방지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매일신문』을 비롯하여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매일신문』, 『대동일보』 등 5개의 지방지가 보급되었다. 이후 울진군의 기관지인 『울진공보』와 청년회의소에서 발행하는 『푸른 울진』 등 몇 종의 신문이 나왔으나 폐간되었다. 1991년 10월 『울진신문』<sup>218</sup>을 시작으로 울진지역에서 발간

216. 『매일신문』(<http://news.imaeil.com>)

217. 『영남일보』(<https://www.yeongnam.com>)

218. 『울진신문』(<http://www.uljinnews.co.kr>)

되는 신문은 현재까지 4종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울진동서신문』이 94년에 창간되었으나 1997년 10월에 폐간되었다.

본격적인 지역 신문으로는 1991년 창간된 『울진신문』부터라 하겠다. 격주간지 『울진신문』은 1991년 7월, 8월, 9월에 창간소식지가 3회 발행되고, 10월 5일 대판 8면에 1만부로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1996년 4월에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지면이 변경되었고, 1999년 9월 인터넷판이 개설되었다.

1997년 11월 『울진자치신문』이 격주간지로서 창간되었다. 인터넷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2000년 6월 3일 인터넷신문 『주간울진21』이 창간되는데 이어 2001년 8월 21 활자신문으로 타블로이드판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2003년 『울진타임즈<sup>219</sup>』가 창간되었다.

『울진저널』은 1993년 3월 창간[발행인 박현옥, 대표 남효선]하여 대판 형식의 8~16면 분량으로 매주 1회, 월 4회 1만부씩 발간하였다. 울진지역에서는 최초로 매주 1회 발간하여 유일한 주간 지역신문으로 1면과 3면 등은 세로 조판으로, 나머지 면은 가로 조판으로 편집하여 세로와 가로조판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역 독자층의 세대별 눈높이 편집방식을 채택하였고 전문기자 and 편집기자를 지역 출신으로 공개채용하여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했다. 특히 지면을 세션화하여 각 면을 정치, 사회·문화·의화·특집·기획·오피니언 등으로 고정배정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 원고를 편집해 울진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등 신문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당시 울진사회의 이슈인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핵폐기물처분장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울진지역 최초로 타블로이드판 호외를 20여회 발간하면서 지역사회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었다. 또 ‘이곳만은 지키자’, ‘울진의 민속문화’, ‘마을지’ 등의 고정 세션을 기획하며 울진지역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2000년까지 280호를 끝으로 휴간하였다.

현재 울진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은 『울진신문』, 『주간울진21』, 『울진자치신문』, 『영월정』[1991년 6월 창간, 한울원자력본부 발행], 『울진타임즈』가 있다. 『울진신문』은 현재 7,000부가 발행되어 전량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영월정과 같은 기관지 성격으로는 울진군의 초·중·고·육·기·관[학교신문 : 주간·격주간·월간·계간]의 각 학교교보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펴내고 있다. 『주간울진21』의 경우 인터넷신문은 하루 접속자 수가 1,500명~2,000명 수준이고, 활자신문은 대판으로 지면이 변경되어 2,000부가 발행되고 있다.

219. 『울진타임즈』(<https://www.uljintimes.co.kr>)

&lt;표 129&gt; 2017년 울진군 내 신문보급 현황

읍면 구분		울진	평해	북면	근남	원남 [매화]	온정	죽변	후포
계	6	-	-	-	-	-	-	-	-
일간	-	-	-	-	-	-	-	-	-
주간	3	3	-	-	-	-	-	-	-
인터넷신문	3	2	-	-	-	-	-	1	-

## 2. 울진지역 신문의 현황

울진 자체의 지역 신문으로서는 잠시나마 『울진시보(蔚珍時報)』가 있었다. 1960년에 있었던 4·19 의거는 자유당 정권을 전복시키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 사회도 민주적인 언론 창달의 폭 넓은 서광을 보게 되어 공보부로부터 울진시보의 발행 인가를 임대득(林大得)의 명의로 얻어 같은해 12월 10일부로 울진 최초의 신문인 울진시보가 주간 프린트판으로 발행되었다.

울진지역은 중앙과 멀리 떨어진 벽지이므로 사회·문화적 교류가 지체됨은 물론이고 특히 정치·경제 등 모든 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해 왔으므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편집 위원들은 시보 발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5·16군사혁명 후 설비의 불완전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그 후 울진군의 기관지인 울진공보와 청년회의소에서 낸 푸른 울진 등 몇 종의 신문이 나왔으나 곧 폐간되었고 본격적인 지역 신문으로서는 1991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울진 신문부터라 하겠다.

현재까지 울진에서 발간되고 있는 신문은 『울진신문』, 『영월정(迎月亭)』<sup>220</sup>이 있다. 『울진신문』은 1991년 2월 11일 공보처에 발행인 및 편집인 전병식이 정기간행물 등록을 신청하여 4월 8일 공보처로부터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전병식과 김일진이 공동 투자하여 자본금을 구성하고 5월 1일 울진을 읍내리 48에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6월 22일 도경호를 창간준비위원장으로 하는 62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7~9월 3개월에 걸쳐 창간 소식지 3회를 발행하였다. 9월 초대 사장에 정원영을 영입하고, 10월 5일 대판 8면으로, 1만 부의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판형은 타블로이드(tabloid)[364×257mm]이다. 16면을 격주로 발행하고 있으며 칼라 인쇄이다. 『울진신문』은 문화·사회·정치·행정·출향인·인물·경제·원전·환경·사

220. 한국수력원자력([http://www.khnp.co.kr/hanul/board/BRD\\_000241/boardMain.office](http://www.khnp.co.kr/hanul/board/BRD_000241/boardMain.office))

건·오피니언·기획·특집·행사·단신·종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12월 초대 사장이었던 정원영이 퇴임하고, 1995년 4월 『울진신문』은 휴간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1996년 4월 형태를 타블로이드로 바꾸고,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여 복간된 『울진신문』은 동년 5월 『울진동서신문』을 흡수 통합하여 사세를 확장하였다. 동년 12월 서울지사를 개설하고 지사장에는 장진영을 선임하였다. 1997년 1월 발행한 8천 부를 전량 우송하는 것으로 배포 방법을 개선하였다. 동년 8월 컬러판 발행을 실시하였다. 11월 기성면 이남 지역에 남부지사를 설치하고 지사장에 정후영을 선임하였다.

1998년 1월 대구지사를 설치하고 지사장에는 장명기를 선임하였다. 2월 서면[현 금강송면]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장에는 황천호를 선임하였다. 3월 기성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장에는 김경곤을 선임하였다. 1999년 1월 울진신문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전병식이 취임하였다. 동년 9월 『울진신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2000년 7월 구독료 납부 방식을 지로로 변경하였다. 2001년 7월 서울지사를 서울·경기취재본부로 승격시키고 본부장에는 주진곤을 선임하였다. 동년 10월 17일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2011년 현재 『울진신문』은 격주로 7,000부를 발행하여 군내 독자 5,000여 명과 출향인 독자 2,000여 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소식지인 『영월정(迎月亭)』은 1991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지역 월간 신문이다. 『영월정(迎月亭)』은 1991년 6월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울원자력본부의 활동 상황을 지역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영월정(迎月亭)』은 15×30cm 크기의 A4 형태로 총 8면으로 발행되며 1~2면은 지역 현황, 3~4면은 한울원자력발전소의 현황 및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6~7면은 일상생활에 유익한 내용 및 한울원자력본부의 지역 협력 및 봉사 활동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8면에는 공고 및 안내문이 실려 있다.

울진지역 신문사는 2018년에는 5개소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일간은 없고 주간 3개소, 인터넷신문이 5개소이다. 이 신문사들은 모두 울진읍에 있다.

&lt;표 130&gt; 울진지역 신문사 현황표

(단위 : 개)

연 별 및 읍면별	신문사			
	계	일간	주간	인터넷 신문
2013	6	-	5	1
2014	6	-	5	1
2015	9	-	3	6
2016	8	-	3	5
2017	6	-	3	3
2018	5	-	3	2
울진읍	5	-	3	2
평해읍	-	-	-	-
북면	-	-	-	-
금강송면	-	-	-	-
근남면	-	-	-	-
매화면	-	-	-	-
기성면	-	-	-	-
온정면	-	-	-	-
죽변면	-	-	-	-
후포면	-	-	-	-

주 : 2013년 자료부터 “인터넷신문” 항목 추가  
 자료 : 울진군 정책기획관

## 제2절 방송

### 1. KBS 라디오방송 중계소

한국은 공영방송이 주축이며, KBS는 시청료와 광고료, MBC는 광고료로 운영되고, 공영방송의 광고업무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담당한다. 민영으로는 SBS를 비롯하여 그리스도교계의 기독교방송[CBS]·극동방송·제주극동방송, 가톨릭계의 평화방송[PBC], 불교계의 불교방송[BBS] 등이 특수 목적으로 설립되어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에 교육방송[EBS]·